”피곤하다...“

드디어 끝난 금요일 마지막 수업.

밤에 하는 학생회 때문에 잠이 줄어서, 요즘 몸 상태가 엉망이다.

수업 시간에 졸고, 쉬는 시간에도 책상에 누워 자고.

...학생회 안 할 때도 그랬던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내일은 주말이니까 알람 꺼두고 푹 잘 수 있겠다.

원 없이 자고 일어나서 컴퓨터나 하다가 졸리면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지.

완벽한 주말 계획이다.

오늘 학생회만 끝나면 자유니까, 좀만 힘내보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3층에 있는 학생회실로 지친 몸을 이끌었다.

(이동, 발소리)

은혜 선배도 학생회실 편하게 써도 좋다고 했으니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도 괜찮겠지?

이 시간에는 아마 아무도 없을 테고.

끼익.

“어? 선배 일찍 왔네요?”

먼저 온 건지 학생회실에선 채아람이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응. 학생회 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려고. 너는?”

“아, 선배도요? 저도 그러려고 왔죠.”

채아람이 기지개를 쭈욱 펴곤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으으~ 끝나고 친구들이 놀자고 했는데,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낮에는 수업 듣고 밤에는 학생회하고. 하루가 진짜 바쁘다니까요?”

“나는 밤에 따라다니기만 해도 지치던데, 너는 싸우니까 더 힘들긴 하겠다.”

“피곤하긴 해요. 그렇지만 좀 있으면 주말이다! 하면서 버티는 거죠.”

의외네. 채아람도 나처럼 견디는구나.

“선배는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나? 나는 좀 자려고.”

“주말에 폭 자는 거 좋죠~ 그리고요?”

“그리고 컴퓨터 좀 하고.”

“어...그리고요?”

“그게...끝인데?”

“.....으엑.”

뭔데. 그 괴상한 표정은.

“아니, 선배. 그런 거 말고 있잖아요? 유명한 카페 가본다던가. 백화점에서 쇼핑 같은 거요!”

“귀찮잖아. 주말에 사람도 많고.”

“재밌으니까 사람이 많은 거죠! 집에만 있으면 시간 아깝잖아요.”

정말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얼굴이다.

하지만 채아람. 세상엔 너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밖에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체력이 깎여버리는 나 같은 사람도 있다고.

“그럼 선배. 기껏 주말인데 집에만 있는 거예요?”

“주말이니까 집에만 있는 거지.”

“...어? 그러면.”

채아람이 멈칫하더니 갑자기 뭔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주말에 일정이 없으니까. 거기에 데려가면...”

“뭐?”

“아! 아니에요. 어쨌든 선배는 이번 주말에 집에만 있다는 거네요?”

“응. 그렇지, 뭐.”

“그럼 저랑 놀면 되겠네요!”

“...너랑?”

“네. 어차피 선배 집에만 있을 거라면서요.”

“그건 그런데... 갑자기 왜?”

“서, 선배가 집에만 있다고 하니까 불쌍하잖아요. 밖에서 노는 것도 얼마나 재미있는데.”

“아니, 너 친구 많으니까 다른 애랑 놀면 되잖아.”

“선배도 제 친구잖아요?”

...친구? 나랑 네가?

“뭐예요. 그럼 선배는 저 친구라 생각 안 했어요?”

친구...까진 아니고 학교 선후배 사이 아니었나?

“설마 선배는 절 학생회 같이하는 직장 동료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야. 치, 친구 맞지.”

“정말요? 근데 그러면 선배가 주말에 싫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집에서 쉬는 게 좋아서...”

“거절하면 선배가 절 ‘학생회 후배’ 정도로 생각한다고 알아들을게요.”

“......”

“하지만 선배는 그렇지 않죠?”

웃는 채아람이 사냥감을 앞에 둔 여우처럼 보였다.

도망갈 길을 다 막아두고 사냥감의 반응을 지켜보는 교활한 여우.

“...그렇진 않긴 한데.”

“그럼 됐네요! 주말에 만나기로 한 거예요?”

“선배도 푹 자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늦게 일어나도 괜찮은 점심쯤이 좋겠다. 어때요, 선배?”

채아람이 싱긋 웃었다.

“선배도 좋죠?”

“...그래. 그러자.”

목이 물린 사냥감답게 나는 처량히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는 걱정하지 말고 몸만 오세요! 제가 일정 다 짜놓을 테니까요!”

채아람은 자신만만하게 웃더니 핸드폰을 켰다.

“요즘 인기 있는 곳 쫙 둘러볼 테니까요! 기대하고 있어요!”

...푹 쉬기로 한 주말 일정은 이렇게 날아가 버렸다.

채아람하고 주말 약속이라니.

...별일 없겠지?